

제6차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 총회 축하 메시지

제6차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부산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창립 열 돌을 맞는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에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는 지금 동북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서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인적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식민지배와 냉전에서 비롯된 역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합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에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책임 있는 실천으로 불신과 오해를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연합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이야말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동북아의 교류·협력에 앞장서 오신 여러분께서 서로의 다양성을 조
화롭게 발전시켜 동북아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총회를 축하드리며,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 바
랍니다.